

## 한글반야심경

###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

관-자재보살이- 깊은 반야바라밀다를- 행할 때-,  
오온이- 공한 것을 비추어-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.  
사리자여! 색이 공과 다르지-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- 않으며-,  
색이 곧- 공이요- 공이 곧- 색이니,- 수 상 행 식도- 그러하니라.  
사리자여! 모든 법은 공하여- 나지도- 멸하지도 않으며-,  
더럽지도 깨끗하지도- 않으며-, 늘지도- 줄지도 -않느니라.  
그러므로 공-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 상 행 식도- 없으며-,  
안 이 비- 설 신 의도 없고,  
색 성 향- 미 촉 법도 없으며-,  
눈의 경계도- 의식의- 경계까지도- 없고,  
무명도- 무명이- 다함까지도- 없으며-,  
늡고 죽음도- 늡고 죽음이- 다함까지도- 없고,  
고 집 멸 도도- 없으며-, 지해도- 얻음도- 없느니라.  
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- 보살은- 반야바라밀다를- 의지하므로-  
마음에- 걸림이- 없고 걸림이-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-,  
뒤바뀐- 헛된 생각을- 멀리 떠나 완전한- 열반에- 들어가며,  
삼세의-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- 의지하므로-  
최상의- 깨달음을 얻느니라.  
반야바라밀다는-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- 주문이며  
무엇과도 견줄 수- 없는 주문이니,  
온갖 괴로움을 없애고-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- 알지니라.  
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.  
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- 모지 사바하(3번)